

#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과 번역

## -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김양선\*

1. 문제설정
2. 국내 여성문학 선집/전집 발간 현황
  - 식민지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
3.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의 필요성
4. 또 하나의 참조점, 한국여성문학의 번역상황

### 〈국문초록〉

본고는 여성작가들의 선집/전집과 여성문학의 정전화 메커니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권에서 출판된 한국 여성작가들의 선집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성과와 한계를 두루 검토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한국 여성문학 선집의 필요성, 내용,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2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해방 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각각 발간된 선집/전집을 검토하였다. 식민지 시기 선집에서 여성문학을 평가하는 핵심주제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었다. 전후 1960년대에 발간된 『한국여류문학전집』은 신, 구세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시키는 종합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독자적인 여성문학 장의 확립을 꾀했다.

---

\*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한편 2000년대에 발간된 두 선집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했지만, 소설 장르에 한정되어 있고 작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이 적은 것이 한계이다.

3장에서는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의 필요성과 내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은 시기적으로는 근대 초기부터 2000년대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험과 창조성을 반영하고, 탈식민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새 선집은 소설, 시, 에세이뿐만 아니라 편지, 정치적 저널, 선언문같은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새 선집은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각 시기와 여성 작가들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미권에 번역된 여성작가와 선집을 소개하였다. 이 번역된 작가들과 작품들은 정전으로 인정받았지만 근대 초기와 식민지 시기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와 소설 이외의 장르들은 배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새 선집은 여성문학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색해야 하고, 여성성, 여성의 글쓰기, 여성의 욕망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 형상화한 작품들을 다루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문학 선집 발간은 문학사에서 잊혀진 여성작가들을 기억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문학, 여성작가, 여성의 시각, 선집, 정전화, 번역, 사회 - 문화적 맥락

## 1. 문제설정

한국 근대문학 장에서 선집(Selected Works)이나 전집(Collected Works) 출간 붐은 주기적으로 있어왔다. 1930년대 중·후반 조선일보사 기획의 『현대조선문학전집』(1938),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8), 『여류단편결작집』(1939), 『신인단편결작집』(1939), 삼천리사 기획의 『명작소설 30선』(1931),

『신문학선집』(1932), 『조선명작선집』(1935), 『조선문학전집』(1936) 등이 선집/전집 출간 붐의 첫 번째 단계라면, 전후 『한국문학전집』(민중서관, 1958)은 이후 수많은 한국문학전집들의 출간을 가능케 했다.<sup>2)</sup> 이와 같은 선집/전집<sup>3)</sup> 출간 붐은 2000년대에도 계속 된다. 대표적인 문학전문 출판사인 창작과비평사의 『20세기 한국소설』(전50권, 2006), 문학과지성사의 『한국문학선집 1900-2000』(전4권, 2007)이 그것이다. 아래는 해당 출판사에서 표방한 발간목적 및 작품 선별 기준이다.

- 1) 한국문학사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엄별해 신는 것은 물론, 작가의 특성과 변모를 보여주는 문제작,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수작(秀作)들을 골고루 실어 내실을 꾀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옥같은 작품들(1910~20년대 작품, 해방 전후 작품, 다수의 월북 작가 작품 등)까지 대거 수록하였다. (중략) 말하자면 순수문학 이데올로기에 의해 침윤된 기왕의 정전들을 해체하고 탈정전화를 통한 재정전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20세기 한국소설』, 창작과 비평사)

---

2) 한국문학전집의 역사와 정전으로서의 의미를 규명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강진호, 「한국문학전집의 흐름과 특성」, 『돈암어문학』 16집, 돈암어문학회, 2005;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3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 선집(選集)은 특정 작가, 특정 작품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골라’ 놓은 것이고, 전집(全集)은 말 그대로 모든 작품을 ‘모아’놓은 작품집이다. 하지만 “최대한 모든 작품을 발굴, 수집하여 빠뜨리지 않고 모으는 것, 그리하여 해당 작가 혹은 해당 네이션의 면모와 사상의 전체를 드러내자”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정환에 따르면 전집은 가늠하기 어려운 어떤 전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모으고 그것에 ‘전체’의 이름을 부여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전집은 곧 선집일 수밖에 없다.(천정환, 위의 논문, 86쪽) 필자가 본고에서 선집/전집이라고 쓰는 이유도 유사한 맥락에서이다. 여성문학, 여성작가의 경우에도 발간 시기나 발간 의도, 발간 주체에 따라 전집과 선집이 두루 발간되었고, 전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모든 작가, 모든 작품이 수록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책의 구성방식, 이데올로기 등을 분석할 때에는 선집/전집이라고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책의 명칭이나 성격에 준해 구별해 쓸 것이다.

2)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기를 대표하는 남북한의 시와 소설 작품, 그 방대한 문학사적 정보를 4권(<시>, <소설>(1,2), <북한문학>)에 집약해 담았다. 한국 현대시와 소설 100년사를 다섯 시기를 나누어 매 시기 가장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한 작품들을 선별해 수록했다.

- 작가 본인, 혹은 작고한 작가의 경우 해제자가 꼼꼼히 본문을 확정하여 완성한 텍스트를 실었다.
- 해당 작가 전공 연구자가 작가의 전기적 정보, 작품 세계, 수록 작품 해설, 주요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 작성한 해제를 수록했다. (문학과 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20세기 한국소설』과 『한국문학선집』 모두 한국문학사를 대표하는, 혹은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한 작품들을 선별해 실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의 경우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수작(秀作),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10-20년대 작품, 해방 전후 작품, 다수의 월북 작가 작품 수락을 특징으로, 후자의 경우 작가 본인 혹은 해설자의 정확한 텍스트 확정, 작품 해설, 주요 참고문헌, 작가의 전기적 정보를 포함한 해제를 특징으로 내세웠다. 지금까지 문학사나 정전 구성에서 배제되어 온 작가(월북작가), 시기(근대 초기, 해방 전후)에 주목하거나 사회 현실의 반영을 선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창작과비평사 판), 분단 이후 남한 중심의 문학사에서 말해지지 않아 온 북한문학을 포함하거나 근·현대를 다섯 시기로 나누는 것(문학과지성사 판) 등은 선집/전집 출판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보다는 편집자나 출판매체의 관점에 따라 선별과 배제의 원리가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요컨대 최근 출판된 선집/전집들의 특성이나 의도를 보아도 문학선집/전집은 한국 근·현대문학사를 계보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욕망을 전제로 하되, 수록 작가와 작품 목록, 발간주체의 이데올로기, 발간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집/전집 출판 붐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문학선(전)집’은 문학사와 문학, 문화의 변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상업적 전략과 대중의 교양 성취 욕망과 결합하여 수용되면서 당대 대중지성의 향방을 제시해 주었다. 여기에 국가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확립, 반공주의나 순문학주의와 같은 매 시기 대중들이 공통감각으로 형성해야 할 이데올로기가 더해지기도 했다. 다시 말해 선집/전집 출간에는 근대문학의 기원과 계보 찾기, 계보 작성하기의 욕망이 내재해 있으며, 편집자와 출판사마다 다른 선별 기준, 상업적 논리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어떤 작가, 어떤 텍스트가 선택되고 배제되는가라는 선집/전집의 구성원리 중 하나로 젠더정치학을 들 수 있다.

서구 근대문학사나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여성작가들의 문학은 오랫동안 정전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 정전과 여성문학 간의 배타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정전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것이므로 여성문학은 정전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즉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남성중심적인 정전에 대응하는 여성중심적인 대안적 정전의 확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정전 자체가 모종의 중심을 상상하는 것이므로 정전을 아예 해체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문학은 남성중심적인 근·현대 문학제도 내지 장에서 배타적인 위치를 점했으면서도 시대적, 상업적 요구에 따라 선집/전집으로 발현되는 정전 형성에 개입되거나 자발적인 정전 만들기의 욕망을 실천하였다. 식민지 시기와 전후에 발간된 여성문학 혹은 여성작가 선집/전집들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전후 발간된 선집/전집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여성문학사의 존재 의의를 밝히고, 최근 다양한 문학선집/전집의 발간 붐에 ‘젠더’의 입장에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여성문학 정전을 수립하고, 그 실천적 형태로서 선집/전집의 내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발간된 여성작가 선집/전집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여성문학 정전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문학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텍스트, 어떤 작가가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과 배제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서지적 고찰은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의 필요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도 일종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북미권에서 발간된 한국 여성문학 선집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고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문학사를 넘어선 대안적 문학사를 제시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한국 근·현대 문학의 계보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문학 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한국여성문학 정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최근 문학전집/선집 발간 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글쓰기나 여성문학사, 여성문학 연구방법론을 총람할 수 있는 마땅한 선집/전집이 없고, 국내와 북미권에서 번역된 여성문학 선집/전집 간의 간극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전집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여성문학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내 여성문학 선집/전집 발간 현황-식민지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

서구 근대문학사나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여성작가들의 문학은 오랫동안 정전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문학의 부상이라든가 선집/전집 발간을 둘러싼 시장 논리에 따라 여성중심적인 대안적 정전만들기 시도는 여러 번 있어왔다. 필자는 식민지 시기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조선일보출판부, 1937), 『여류단편결작집』(조선일보사, 1939)과 해방 후 <한국여류문학인회>(1965년 창립) 편의 『한국여류문학전집』(삼성출판사, 1967)을 중심으로 수록 작가, 작품, 장르별 안배 등을 살펴볼 것이다.<sup>4)</sup>

4) 필자는 이미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정전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다른 글에서 ‘여류’ 문학 선집 및 전집을 실증적으로 개관하고, 또 다른 준거점으로 식민지 시기와 전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 발간된 ‘여류’문학 선집/전집은 시기뿐만 아니라 편집주체, 출판주체, 작품수록 편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에 내재된 젠더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문학 이론 및 실천이 문학 장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2000년대 이후 발간된 여성문학 선집의 체제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여성문학 선집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조선일보출판부, 1937)

강경애: 「어둠」(소설)

김말봉: 「편지」(소설), 「오월의 노래」(시)

김오남: 「유곡」, 「그리던 곳」, 「원망」, 「시름」, 「죽은죽하생각」(시조)

김자혜: 「비에 젖은 아침」, 「어머니의 설음」(수필)

노천명: 「바다의 향수」, 「밤의 찬미」, 「국화제」, 「만월대」, 「교정」(시)

이선희: 「계산서」(소설), 「곡예사」, 「한여름밤의 꿈」(수필)

모운숙: 「나의 도시」, 「라일락숲으로」, 「한밤의 서곡」, 「늪음」, 「밤호수」(시), 「오월 隨想」, 「다랫골 촌락에서」(수필)

박화성: 「춘소」(소설), 「빛을 그리는 마음」, 「낙화의 氣」(수필)

백국희: 「코스모스」, 「녹음」, 「비오든 그날」, 「고적」(시), 「봄의 소야곡」(수필)

백신애: 「꺼래이」(소설), 「자숙」, 「금비녀」(수필)

장덕조: 「자장가」(소설), 「사월 하늘」, 「남국에 맺는 꿈」(수필)

장영숙: 「池邊神話」, 「삶은 수고로워」(수필)

장정심: 「맑은 그 눈」, 「못지 마오」, 「고대」(시)

---

후 편찬된 문학전집에 수록된 여성작가와 작품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본고의 목적이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의 내용과 방법론 제시에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자 한다. 각 선집/전집의 구체적 의미와 그것이 여성문학 장의 제도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양선, 「근·현대 여성문학 정전의 형성과정 연구」,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문학 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주수원: 「저울질하는 마음이요」, 「편물」, 「문어진 탑」, 「내맘은 나에게  
왕국이외다」(시),  
「바늘」, 「실패」, 「달」(시조), 「진달래」(수필)  
최정희: 「흥가」(소설), 「자화상」, 「봄 우울」(수필)

◎ 『여류단편결작집』(조선일보사, 1939)

강경애: 「지하촌」/ 장덕조: 「한야월(寒夜月)」/ 이선희: 「연지」/ 박화성: 「춘소(春宵)」/ 최정희: 「곡상」/ 노천명: 「사월이」/ 백신애: 「채색교」, 「호도(糊途)」

식민지 시기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과 『여류단편결작집』의 발간 주체는 여성작가가 아니라 ‘조선일보사’라는 특정 출판사이다. ‘여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선집이 두 번 간행된 것은 ‘여성’이 근대문학 장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와 같은 편입이 불안정한 것임은 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두 선집의 수록 작품이 다른 점, 소설이나 시보다는 수필의 수록 편수가 많다는 점에서 확인된다.<sup>5)</sup> 작품 선정의 주체도 다르다. 전자의 경우 편집자가 “몇 편 씩 한데 모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정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여성작가 자신이 수록작품을 선정하는 ‘자선(自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가 대표작이라고 여기거나 당대 문학 장의 경향을 고려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골랐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비균질성에도 불구하고 『여류단편결작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주제 및 경향에서 모종의 유사성이 있다. 강경애 「지하촌」, 박화성 「춘소(春宵)」, 백신애 「호도(糊途)」에서 드러나듯 주로 빈곤, 이주, 가부장적 폭력 등을 여성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는 점,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리얼리

5) 『여류단편결작집』은 이미 선집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만,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은 이런 장르적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활동했던 여성작가를 종합 소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시인이나 소설가라 하더라도 수필이 함께 수록된 것은 당대 독자들과 저널리즘의 대중적 관심을 의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즘)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 문학제도 및 저널리즘이 여성문학에서 사회 현실의 형상화를 작품성을 평가하는 주된 잣대로 삼았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두 선집 중 『여류단편결작집』은 식민지 시기, 즉 근대문학 성립기 여성소설가의 존재와 작품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고,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은 소설, 시, 수필 장르를 포괄하면서, 당대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을 망라하는 종합의 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소설, 시, 수필 장르 외에 논설이나 희곡 등 다른 글쓰기 실천들은 선집의 틀에서 제외되었으며,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으로 대표되는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이 배제되었다. 즉 식민지 시기에 ‘여류’라는 이름으로 특화되어,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이 두 선집은 당시 여성작가와 문학이 근대문학 장에 편입되었지만, 여성문학의 기원을 배제하는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전후 여성문학은 선집이 아닌 전집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전후 여성작가들의 등단 경로가 신춘문예, 여성잡지, 신문현상공모 등으로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작가군들이 등장하면서 최초의 여성문인 집단인 <한국여류문학인회>(1965)가 결성되었다. 이 집단이 발간을 주도한 『한국여류문학전집』(1967)은 “현대문학의 태동기에서부터 오늘까지에 여성작가들이 창작해 온 작품 수록의 집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집 1권은 시기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장르상으로는 소설만을 수록하였다. 작가와 작품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한국여류문학전집』 1권 - 중단편소설(1)

박화성 : 「하수도 공사」, 「비탈」, 「한귀」, 「홍수전후」, 「고향없는 사람들」,  
「증언」

강경애 : 「지하촌」

백신애 : 「적빈」

최정희 : 「정적일순」, 「지맥」, 「찬란한 대낮」

장덕조 : 「정청궁 한야월」, 「곡성」, 「창백한 안개」, 「30년」

김말봉 : 「망령」, 「바퀴소리」, 「여심」

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선집과 유사하게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백신애, 장덕조, 김말봉의 작품이 선택되었으며,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또한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의 작품들은 최정희나 장덕조와는 달리 식민지 여성들이 민족적, 계층적, 성적으로 억압받는 양상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들이다. 즉 이들의 작품은 식민지 시기 ‘빈곤의 여성화’ 양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형성, 대표성을 지녔기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집 2권부터는 일제 말기나 해방 후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 『한국여류문학전집』2권 - 중단편소설(2)

임옥인 : 「월남전후」

손소희 : 「창포 필 무렵」, 「닿아진 나사」, 「감이 익는 오후」, 「그날의  
햇빛은」, 「암비둘기」, 「지단에서」, 「어느 휴일」, 「정동(대결2)」

한무숙 : 「돌」, 「감정이 있는 심연」, 「천사」, 「그대로의 잠을」, 「유수암」

윤금숙 : 「허망」, 「단짠」

◎ 『한국여류문학전집』3권 - 중단편소설

강신재 : 「파도」, 「짧은 느티나무」

박경리 : 「전도」, 「불신시대」, 「풍경(A)」, 「풍경(B)」, 「환상의 시기」, 「평면도」

정연희 : 「정점」, 「창구있는 묘지」

한말숙 : 「장마」, 「노파와 고양이」, 「상처」, 「방관자」

손장순 : 「깍두기 씨」, 「미세스 마야」

2권은 일제 말기나 해방 후, 3권은 한국전쟁 직후 등단한 작가들<sup>6)</sup>의 소설을 수록하고 있어 여성문학 장 내의 세대교체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전집 전체 체제를 보면 1권부터 4권까지 소설, 5권 아동문학, 희곡, 수필  
모음<sup>7)</sup>, 6권 시로 구성되어 있어 소설 장르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시만 수록된 전집 6권에는 해방 전 여성 시인들로 모운숙과 노천명  
의 작품만 수록되어 있을 뿐, 해방 전 선집에는 수록되었던 군소 여성시  
인들이 배제되었다. 이런 선별과 배제는 해방 이후 여성문학 장, 나아가  
전체 문학 장에서 여성시의 위상이 모운숙과 노천명 중심으로 고착되었  
음을 의미한다.

『한국여류문학전집』은 여성문단의 원로부터 신진에 이르기까지 세대  
를 포괄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작가와 작품을 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집의 발간을 주도한 <한국여류문학인회>가 문학집단으로서의 정체  
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른바 선택과 취사의 원칙보다는 포섭과  
종합의 원칙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 여성작가들은 남성 중심  
의 문학 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문학 장의 제도화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1990년대 이후 여성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문단의 여성화’  
라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작가의 수나 역량이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여성문학 강좌가 개설되는가 하면 비평이나 연구 영역에서 여  
성문학(사) 연구가 국문학 연구의 하위 분야로 자리 잡게 된다. 특정 여성  
작가의 전집이나 선집이 발간된 것도 이 시기이다. 『한무숙 문학전집』  
외에 7,8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인 박경리와 박완서의 전집<sup>8)</sup>뿐만 아

6) 1949년에 등단한 강신재는 예외이나, 이 작가도 주요 작품을 내놓은 시기는 50  
년대 후반-60년대였다.

7) 4권은 1960년대에 막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의 작품을 대개 1편정  
도 수록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예의 문학(사)적 의의보다는 여성작가군의 폭  
발적 증가에 맞춰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종합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  
록 작가 목록은 아래와 같다.

4권 : 구혜영, 박기원, 송원희, 최미나, 김의정, 전병순, 박순녀, 김녕희, 이정호,  
이규희, 이석봉, 안 영, 오지영

5권(아동문학, 희곡, 수필): 아동문학 - 신지식, 이영희, 남미영/희곡 - 김자림,  
박현숙, 송숙영/수필 - 이명운, 조경희, 전숙희, 정충량, 김일순, 천경자, 전해린

8) 1980년대 중반 이후 연속 발간된 『박경리 문학전집』(지식산업사)과 『박완서 소

나라,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의 심화에 힘입어 『나혜석 전집』(이상경 편, 태학사, 2000), 『강경애 전집』(이상경 편, 소명출판, 1999)이, 여성시인으로는 『고정희 시전집』(또하나의 문화, 2011)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 여성문학 강좌 교재의 필요성이라든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 여성 대중의 교양 함양 등 발간 목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몇 차례 근·현대 대표작가의 작품들을 엮은 선집이 기획, 발간되었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송명희, 안숙원, 이태숙 편, 푸른사상, 2002)

<제1권>

김명순 : 「칠면조」, 「돌아다 볼 때」 / 나혜석 : 「경희」, 「현숙」 / 김일엽 : 「어느 소녀의 사(死)」, 「자각」 / 박화성 : 「하수도공사」, 「호박」 / 김말봉 : 「망명녀」, 「고행」

<제2권>

백신애 : 「적빈」, 「광인수기」 / 강경애 : 「동정」, 「지하촌」 / 최정희 : 「천맥」, 「수탉」 / 이선희 : 「계산서」, 「탕자」 / 지하련 : 「산길」, 「도정」 / 임옥인 : 「후처기」, 「전처기」

◎ 『스무살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 (이정희 편, 청동거울, 2002)

김일엽 : 「자각」 / 강경애 : 「원고료 이백 원」 / 백신애 : 「광인수기」 / 이선희 : 「탕자(蕩子)」 / 최정희 : 「천맥」 / 강신재 : 「안개」 / 한무숙 : 「감정(感情)이 있는 심연(深淵)」 / 한말숙 : 「신화(神話)의 단애(斷崖)」 / 오정희 : 「중국인 거리」 / 박완서 : 「엄마의 말뚝 1」

2000년대 이후 발간된 두 선집은 첫째,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작가 작

---

설전집』(세계사, 1993),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문학동네, 1999)이 있다.

품 읽기'라는 뚜렷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선집 제목에서 페미니즘을 부각하거나 간단한 작품해설에서도 여성성, 여성해방, 젠더 의식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이라는 작가의 성별 외에 여성(문학) 의식의 유무를 텍스트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 두 선집 모두 소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외 장르인 시, 희곡, 비평, 기타 글쓰기는 빠져 있다. 강의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독자 대중의 취향과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 추측되지만 여성문학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정전으로서의 역할에는 못 미친다. 셋째, 수록된 작가와 작품을 보면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 이선희, 김말봉, 최정희, 임옥인 등은 앞 시기에 발간된 선집들의 수록 작가, 작품과 유사하다. 뚜렷한 차이점은 여성들의 근대적 글쓰기가 지닌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남성 중심의 문학장에서 배제되었던 작가들을 여성문학사에서 복원하려는 시도가 결실을 맺으면서 소위 제1기 작가들에 해당하는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전후 여성문학 선집에서 빠졌던 지하련, 이선희 등의 작가가 재수록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두 선집은 차이도 있다.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가 식민지 시기에 등단한 여성작가들을 선택함으로써 근대 여성문학사의 정전 확정에 치우쳐 있다면, 『스무살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은 해방 후 작가들인 강신재, 한무숙, 한말숙, 오정희, 박완서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강신재, 한무숙, 한말숙이 60년대, 오정희, 박완서가 8,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들로 선택됨으로써 독자 대중의 공통감각이나 취향을 고려한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근·현대 여성문학사의 계보 작성을 염두에 둔다면 두 선집 모두 구성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전자의 경우 전후부터 90년대까지 여성적 글쓰기나 여성해방의식을 실천한 여성작가와 작품들을 포괄하지 못한 점, 후자의 경우 수록 작품 수가 적은 만큼 어떤 작가는 배제되고 어떤 작가는 선택되었는지 나름의 준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다. 또한 이전 시기 선집/전집과 마찬가지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 시대 문화적 배경, 매 시기 여성의 삶이나 위치에 대한 고찰 등

여성문학(사) 정전으로서의 대표성이나 가치를 입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 3.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의 필요성

지금까지 발간된 여성문학 선집/전집은 시기적으로 근대 초기와 식민지 시대에, 장르로는 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해방 이후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록 작품의 경향에서는 식민지 시기 작품의 경우 ‘여성의 근대적 자각’, ‘빈곤의 여성화’라는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소설과 시, 수필 외에도 다양한 글쓰기 실천들이 시도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 생산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당대 여성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여성 및 여성문학이 처한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최근 대중교양 함양이나 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새로운 대안적 정전만들기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학 선집/전집 발간 붐에 조응하는 새로운 선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sup>9)</sup> 더욱

---

9) 이천년대 이후 발간된 창작과비평사와 문학과지성사 판 선집의 경우 여성작가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령 ‘창작과비평사 판’의 경우 나혜석, 강경애, 백신애, 박화성, 지하련, 최정희, 이선희, 임옥인, 손소희, 강신재, 박경리, 한말숙, 한무숙, 전병순, 오정희, 이순, 김채원, 김민숙, 김만옥, 서영은, 박완서, 유시춘, 양귀자, 윤정모, 강석경, 김향숙, 이해경, 홍희담, 김인숙, 김형경, 최윤, 이청해, 김승희, 공지영, 공선옥, 신경숙, 서하진, 은희경, 전경린, 함정임, 한강, 하성란, 조정란, 배수아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근대 초기부터 현재 활동하는 작가까지 아우르면서 적게는 한 편, 많게는 작품집 한 권 분량을 할애해 수록하였다. 예의 가능하면 많은 작가를 포괄하는 종합의 원칙이 관철된 사례이다. 하지만 근대 초기 작가에 대한 조명이 미흡하거나 작품 선정의 기준에 여성의 시각이 관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학과지성사 판’의 경우 소설 편에는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한무숙, 박경리, 오정희, 박완서, 서영은, 김향숙, 양귀자, 신경숙, 최윤, 은희경, 시 편에는 식민지 시기 작가로는 노천명만 수록되었고, 해방 후 작가로 홍윤숙, 김남조, 1960년대 이후 유안진, 천양희, 강은교, 문정희, 노향림, 신달자, 김승희, 고정희, 김경란, 김혜순, 최승자, 1980년대 이후 황인숙, 허수경, 정끝별, 조은, 나희덕, 박라연, 조용미, 최정례, 이원이 수

이 문학전집/선집은 새로 교체되고 등장하는 문학 수용자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새롭게 편집되고 발간되어 왔다<sup>10)</sup>는 점을 고려한다면 첫째, 여성 문학 선집은 9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고, 이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정전의 다양성, 복수성을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2000년대 전까지는 소위 문학사가와 비평가이자 유력한 문학교수가 문학전집의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문학전집은 문학교과서와 함께 민족적 이념의 구현, 교양 함양과 같은 계몽적 역할을 자임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도 “문학적 계몽주의를 ‘국민’ 전체에 대해 실현하고”<sup>11)</sup>자 하는 정전으로서의 권력 의지나 출판사의 상업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 아동, 성인 등 세대별로 분화되는 무성적(無性的)독자 기준을 넘어서고, 독자의 성별과 탈이념, 다문화, 글로벌과 같은 변화한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단수’의 정전이 아닌 ‘복수’의 정전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sup>12)</sup>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은 이런 ‘복수’의 정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은 어떤 선별 원칙을 제시하고, 어떤 시기를 포괄할 것인가.

먼저 선집이나 전집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

록되었다. 상대적으로 이광수와 김동인으로 시작하는 기존의 선집 관행을 답습한 소설 편의 경우 근대 초기 여성작가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문학과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추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여성작가들(대표적으로 60년대 강신재, 8·90년대 공선옥, 공지영이 있다.)이 누락되어 있어 선정기준에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문학전집/선집은 끊임없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매체이며, 출판사와 편집자에 따라 선정 작가와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0) 천정환, 앞의 논문, 88쪽.

11) 위의 논문, 118쪽.

12) 장성규 역시 ‘창비’와 ‘문지’의 한국문학전집이 지닌 한계를 논하면서 디아스포라 문학, 여성문학, 대중문학이 여전히 배제되었다고 진단한다. 또한 이 배제된 항목들을 문학사적으로 복권하는 새로운 정전과 전집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복수’의 정전과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장성규, 「우리 시대의 문학전집 혹은 정전의 재구성-문지와 창비의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대하여」, 『서정시학』 17권 4호, 서정시학사, 2007년 겨울, 88-90쪽.

원칙이 작용하면서 변화하는 매체이다. 그러면서도 문학 전통, 나아가 한 사회의 미학적, 지적 전통을 세우거나 확인하는 데 바로미터가 된다. 더욱이 여성문학 선집은 기존 남성작가와 문학 전통의 중심과는 ‘다른’ 새로운 정전만들기이면서 여성의 시각으로 문학의 전통, 지적 전통을 재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를 추구하거나 가치를 지향해 온 한국 근·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 선집은 출발에서부터 젠더적 시각과 더불어 식민지-반식민지라는 특수한 사회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식민화와 탈식민화의 경험, 산업화, 분단과 이산의 경험과 같은 한국 근·현대문학이 관심을 기울이고 반영해 온 사안들을 여성작가의 작품, 여성의 시각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특수성 외에 다른 언어권 및 문화권과의 소통과 상호 참조가 가능한 한국 여성문학 선집을 만듦으로써 젠더적 관점이라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시기를 포괄할 것인가’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근대 초기부터 현재 2000년대까지를 총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성이 처한 현실, 여성의 경험과 창조성을 반영한 글쓰기 실천이 전개된 양상을 파악하고, 식민의 경험뿐만 아니라 탈식민화의 다양한 경향들을 포착하려면 포스트 박완서, 오정희 세대의 여성작가와 문학까지를 포괄하여야 한다. 또한 근대 초기는 여성의 근대성 및 근대 여성문학의 기원을 확정하고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셋째, ‘어떤 선별 원칙을 제시할 것인가’는 ‘대표적인(classic)’ 혹은 ‘기준이 되는(standard)’ 여성작가와 작품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서술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기존 문학 장이나 여성문학 장에서 ‘정전’으로 확정된 작가와 작품 외에 주변화되어 왔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대표 혹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여성문학 연구 장에서의 공통감각에 근거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소설과 시, 희곡, 수필과 같은 장르 외에 각 시기 여성들이 행했던 다양한 글쓰기들도 포괄할



것을 제안한다.<sup>13)</sup> 이들의 글쓰기가 엄격한 의미에서 문학의 범주로 수렴될 수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영미권 선집(anthology)의 경우 ‘장르의 다양성(diversity in genre)’을 염두에 두고 편지, 정치적 저널리즘의 글, 선언문 등을 포함시킨 것을 참고한다면 우리 근·현대 여성문학 선집의 범주도 넓힐 필요가 있다. 가령 근대 초기 여성들이 신문에 기고한 독자투고, 여성교육을 촉구하는 글, 여성잡지 창간사,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 등 자전적 글쓰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게다가 오랫동안 리얼리즘/모더니즘, 참여/순수의 대립항을 자기 복제하면서 저마다의 ‘문학성’을 문학전집의 선별기준으로 삼아온 기존의 관행을 해체할 필요도 있다. 여성문학의 정체성이 남성중심적 세계관의 해체에 있다면, 기존 문학전집의 공고한 장르 체계나 문학성을 넘어서는 것 역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출판사의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즈음한 글에서는 작품 이해의 지침과 비판의 근거가 될 만한 정밀한 텍스트 비평과 주석 작업이 수행된 텍스트를 전집이나 선집 출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sup>14)</sup> 원전 확정과 텍스트 비평, 주석 등은 선집에서 ‘무엇을 기술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오랫동안 북미 강단에서 활동해 온 최경희 교수는 한국문학의 번역과 관련하여 “원전 비평의 대략적 기준을 만족시키고 주석을 겸비한 텍스트들의 출판”, “참고문헌, 주석 제공”과 같은 일차적인 문헌의 번역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sup>15)16)</sup> 비단 한국문학 번역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더

13) 최근에도 권별로 연속 발간되고 있는 『범우비평판 한국문학』의 경우 시, 소설, 희곡, 평론뿐만 아니라 수필, 사상, 기행문, 실록 수기, 역사, 담론, 정치평론, 아동문학, 시나리오, 가요, 유행가까지 포함하여 작가의 면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제안과 유사하나, 여성문학 선집의 경우 현실적으로 ‘범우비평판’ 만큼의 분량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면 많은 작가, 글쓰기 양상을 ‘종합’하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텍스트를 ‘선택’하는 해안을 발휘해야 한다.

14) 이병훈, 「불충분한 몇 가지 단상-문학과 지성사 판,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즈음하여」,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05년 봄, 320쪽.

15) 최경희, 「북미 학계의 한국문학 수용의 맥락-지역학, 번역, 경계 횡단」, 『안과밖』 31호, 영미문학연구회, 2012, 102쪽.

라도 여성문학 선집은 여성 글쓰기의 전통과 변전, 여성문학 장의 변동을 고려한 독자적인 시대구분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시대 개관, 작가 소개, 작품 분석 등이 기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발간된 여성문학 선집/전집이 시대구분이나 시대 개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시적 고찰과 시대구분과 개관이라는 거시적 고찰을 횡단하는 선집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 4. 또 하나의 참조점, 한국여성문학의 번역상황

한국 여성문학 선집이나 개별 여성 작가의 선집은 국내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몇 차례 발간된 바 있다. 필자는 앞에서 다른 언어권 및 문화권과의 소통과 상호 참조가 가능한 한국 여성문학 선집을 만듦으로써 한국문학 연구 장의 폐쇄적 시야와 방법론을 넘어서는 개성 있는 정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작가와 작품들이 번역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의 번역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북미권에서 번역된 여성작가 선집 및 여성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 ① 여성작가 선집

*Questioning Minds: Short Stories by Modern Korean Women Writers*(김영희 편역, 번역, 하와이대학 출판부, 2010)

- 
- 16) 물론 그는 연구출판물에 비해 강의개설을 위한 문학작품들의 번역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2000년대 후반기부터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물이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한 주제론적 강의가 가능해질 만큼 축적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번역텍스트의 어휘 풀이, 주석 제공, 참고문헌(사회역사적 맥락, 작품 생산 배경이나 작가와 관련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순 「의심의 소녀」 / 나혜석 「경희」 / 김원주 「자각」 / 한무숙 「월훈」  
/ 강신재 「안개」 / 송원희 「낙엽이 떨어질 때」 / 이순 「병어회(A Dish  
of Sliced Raw Fish)」 / 이석봉 「새벽빛(The Light at Dawn)」 / 최윤 「당신  
마음 속의 돌」 / 박완서 「마른 꽃」

*Unspoken Voices: Selected Short Stories by Korean Women Writers*(최진영 역,  
Homa & Sekey, 2002) (수록작가: 최정희, 한무숙, 강신재, 박경리, 이석봉,  
이정호, 송원희, 박완서, 은희경, 공지영, 한강)

*Words of Farewell: Stories by Korean Women Writers*(Bruce and Ju-Chan Fulton  
번역, Seal Press, 1993)

강석경(Sok-Kyong Kang), 「낮과 꿈(Days and Dreams)」, 『숲 속의 방(A  
Room in the Woods)』 / 김지원(Chi-Won Kim), 「자장가(Lullaby)」, 「어떤 시작  
(A Certain Beginning)」 / 오정희(Chong-Hui Oh), 「저녁의 게임(Evening  
Game)」, 「중국인거리(Chinatown)」, 「별사(Words of Farewell)」

*Wayfarer: New Fiction by Korean Women*(Bruce and Ju-Chan Fulton 역,  
Women in Translation, 1997)

김지원 「Almaden」 / 최윤 「하나코는 없다」 /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  
의」 / 김민숙 「봉숭아꽃물」 / 서영은 「먼 그대」 / 박완서 「닮은 방들  
(Identical Apartments)」 / 공선옥 「우리 생애의 꽃(The Flowering of Our Lives)」,  
오정희 「나그네(Wayfarer)」

## ② 여성작가 단편 선집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There a Petal Silently Falls:  
Three Stories by Choe Yun)』, Bruce and Ju-Chan Fulton 역, Weatherhead  
Books on Asia-Columbia Univ Press, 2008

박완서, 『마른 꽃(Weathered Blossom)』, Yu Youngnan 역, Hollym, 2006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Strength from Sorrow)』, Youngju Ryu 역,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Press, 2005

최정희, 『현의 울음(Cry of the Harp): Collected Works』, Genell Poitras 역, East Bridge, 2005

양귀자, 『멀고 아름다운 동네(A Distant and Beautiful Place)』, Kim So-young and Julie Pickering 역, Hawaii University Press, 2002

### ③ 여성 작가 장편소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 Chi-Young Kim 역, Knopf, 2011

박경리, 『토지(Land 1, 2, 3)』, Agnnita Tennant 역, Global Oriental, 2011

김인숙, 『먼 길(The Long Road)』, Stephen Epstein 역, Merwin Asia, 2010

강경애, 『인간문제(From Wonso Pond)』, Samuel Perry 역, Feminist Press, 2009

조경란, 『혀(Tongue)』, Chi Young Kim 역, Bloomsbury, 2009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Who Ate Up All the Shinga?)』, Yu Young-Nan and Stephen Epstein 역, Columbia Univ Press, 2009

오정희, 『새(The Bird)』, Jenny Wang Medina 역, Telegram Books, 2007

공지영, 『봉순이 언니(My Sister Bongsoon)』, Park Jung-eun 역, Mosaic, 2006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And So Flows History)』, Young Key and Kim Renaud 역, University Hawaii Press, 2005

양귀자, 『모순(Contradictions)』, Stephen Epstein and Kim Mi Young 역, Cornell East Asia Series, 2005

손장순, 『물 위의 도시(A Floating City on the Water)』, Jin Yong Choi 역, Homa&Sekey, 2004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The Curse of Kim's Daughters)』, Choonwon Kang 외 역, Homa&Sekey, 2004

#### ④ 여성시인 시 선집

*Anxiety of Words: Contemporary Poetry by Korean Women*(최돈미 역, Zephyr, 2006), 수록 작가: 최승자, 김혜순, 이연주

*Echoing Song, 20 Women Poets* (피터 리(Peter H. Lee) 편, White Pine)

김승희, *I want to Hijack an Airplane*, Kyung-nyun Kim Reichards and Steffen F. Richards 역, Homa and Sekey, 2004

김승희, *Walking on a Washing Line*, Brother Anthony and Lee Hyung Jin 역, Cornell East Asia Series, 2011

김혜순, *Mommy Must be a Fountain of Feathers*, 최돈미 역, Action Books, 2008

나희덕, *Scale and Stairs*, Won-Chung Kim and Christopher Merrill 역, White Pine, 2009

나희덕, *What is Darkening*, Choi Jongyoll 역, Jain, 2007

문정희, *Woman on Terrace*, Alec Gordon and Seong-Kon Kim 역, Pine, 2007

문정희, *Windflower*, Wolhee Choi 역, Hawks, 2004

최정례, *Instances*, Brenda Hillman and Wayne de Fremery 역, Parlor Press, 2011

위 목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여성문학 선집뿐만 아니라 개별 작가의 선집도 꾸준히 번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작가들의 경우 박완서, 양귀자, 최정희, 최윤 등의 단편선집이, 박경리, 박완서, 한무숙, 강신재, 신경숙 등의 장편소설이 번역되었다. 또한 시의 경우 나희덕, 문정희, 김승희 등의 시집이 번역되었다.

지금까지의 번역상황을 보면 한국에서도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작품성이 있거나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가와 작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가와 작품들이 번역되었다. 하지만 근대 초기나 식민지 시기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설과 시 외에 수필이나 희곡, 비평 등 다른 장르의 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독자적인 여성문학사에 대한 선(先)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기보다는 한국(여성) 문학 알리기와 북미권 독자의 취향, 대중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7)</sup>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문학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번역이 가능한 인력풀이 적은, 번역국 언어와의 위계가 있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는 근대초기-식민 시기-후기 식민 시기를 아우르고, 영미권 독자에게 젠더, 인종, 계급, 역사성, 식민성 등의 문제를 중층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선집, 한국 여성문학 장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집 발간이 요구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문학 장 안에서 출간된 여성문학 전집/선집 발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영미권에서 출간된 여성문학 선집 및 여성작가, 작품 번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문학 권역에서 출간된 선집의 경우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가와 작품이, 북미권 선집의 경우 60년대부터 현재 활동 중인 여성작가들이 주로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 같은 차이는 선집 구성에 작동하는 선택/배제의 원리가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역, 독자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앞서 선별 원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classic)’ 혹은 ‘기준이 되는(standard)’ 여성작가와 작품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것을 ‘대표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볼지도 편집자의 목적

17) 북미에서 출판된 선집은 편저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 한국 문학번역원 지원 도서의 경우 번역원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선별기준이나 체제에서 근·현대여성문학(사)에 대한 모종의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18) 다만 최근 발간된 하와이대 여성문학 선집의 경우 김명순, 나혜석 등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의 작품까지 수록함으로써 여성문학사의 계보를 의식한 점이 돋보인다.

이나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선집/전집의 구성에는 기획이나 선정위원, 출판사, 발간지원을 하는 기관의 정책이나 성향과 같은 상업적, 교육적, 정치문화적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문학 장 내에서의 여성문학 선집의 기준 세우기도 미처 되어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범박하게 말해 한국문학권 내부에서 쓰일 수 있는 여성문학 선집과 세계문학 권역에서 수용 가능한 여성문학 선집의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sup>19)</sup> 우선 필자는 <The Norton Anthology Literature by Women>처럼 여성문학의 전통을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다양한 여성적 글쓰기 실천을 포괄하는 ‘종합’의 원칙이 그간 특정 시기, 특정 작가에 한정된 여성문학 선집/전집을 넘어서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문학을 발생시킨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입문적(introductory) 해설뿐만 아니라 여성문학이 어떻게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여성의 욕망과 같은 젠더화된 특성을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여성성이 라든가 여성적 글쓰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20)</sup>

두 번째, 여성문학 선집 발간은 그동안 문학사에서 잊혀져 왔던 여성작가들에 대한 기억하기이며, 이들의 작품을 재의미화하는 실천적 작업이다. 더욱이 한국의 여성문학은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과는 ‘다른’

---

19) 국내 독자를 고려한 선집과 국외 독자를 고려한 선집을 따로 출판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통의 선집을 출판해야 하는가도 난제이다. 한국 여성문학(사)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독자 대중의 취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선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법하다. 하지만 기존에 출판된 국내 여성문학 선집의 경우에도 시기별 문학사 개관이나 문학적 쟁점, 해당 작품을 낳은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국외 선집도 시대적 배경이나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별도의 선집 출판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출판 비용, 시간 등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편집자 개인이나 출판매체의 취향 등을 배제한, 공동 작업을 거친 공통의 선집 출력이 합당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0) 김양선, 「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제도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5쪽.

식민과 탈식민 상황이 중첩되어 있는 근대(성)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회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되 한국문학이라는 네이션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여성작가, 여성문학을 넘어서 다른 나라 언어나 문화와의 소통도 함께 고려할 시점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 경우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은 한국을 번역하는 것이자, 근대를 번역하는 것이고, 젠더를 번역하는 다중적 번역 상황이 교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수성과 다른 언어, 문화권 독자에게도 수용 가능한 보편성을 겸비한 여성문학 선집의 모델 만들기를 앞으로의 과제로 열어두기로 한다.



## 1. 1차 자료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

『여류단편걸작집』, 조선일보사, 1939.

『한국여류문학전집』, 삼성출판사, 1967.

##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호, 「한국문학전집의 흐름과 특성」. 『돈암어문학』 16집, 돈암어문학회, 2005.

김양선, 「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제도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송명희·안숙원·이태숙 편,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 푸른사상, 2002.

이정희 편, 『스무살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 청동거울, 2002.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이병훈, 「불충분한 몇 가지 단상-문학과 지성사 판,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즈음하여」,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 2005 봄.

장성규, 「우리 시대의 문학전집 혹은 정전의 재구성-문지와 창비의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대하여」, 『서정시학』 17권 4호, 서정시학사, 2007 겨울.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3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최경희, 「북미 학계의 한국문학 수용의 맥락-지역학, 번역, 경계횡단」, 『안과밖』 31호, 영미문학연구회, 2012.

Gilbert, Sandra., and Susan Gubar, *The Norton Anthology of Literature by Wome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6.

〈Abstract〉

## Canoniza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Women's Literature

Yangsun Kim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looks into anthologies of female writers and examines the mechanism of canonization in women's literatur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the limits of the anthologies of Korean women's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as well as in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I will suggest the contents and methodologies for new Korean women's literature anthology in relationship with world literature.

The second section reviews the anthologies published in the colonial perio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and since the 2000s. In the colonial period's anthologies, the key standard for evaluating women's literature was the reality of colonial Chosun. After Korean War, *Korean Women Writer's Literature Collection* contained the works by a wide range of writers of the old and new generations in women's literary circle, and took the principle of embracement and aggregation. The two anthologies published after the 2000s maintained feminist's view. But fiction-oriented contents, and very few explanations and comments remained as a limitation.

In the third section, I suggest the need for a new women's literature anthology. The new Korean women's literature anthology needs to include works from the early modern period to the contemporary 2000s. Reflecting women's experiences and creativities, and portraying various aspects of de-colonization are important in new anthology. And the new anthology

should include various literary genres like letters, political journals and declarations, including fictions, poems, plays, and essays. Finally, the new anthology has to make a microscopic approach toward individual writers and their works, and offer a macroscopic perspective on each period and women writers in general.

The fourth section introduces selected works or women writers that have been translated since the 2000s. Even though writers and their works recognized as canon in Korean women's literature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these include only few works from the early modern period and the colonial period. Moreover, it is rare to see works in genres other than fiction and poetry.

In conclusion, the new anthology must survey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surrounding women's literature, how women's literature deals with gender issues such as femininity, feminine writing and female desire, and how the femininity or feminine writing has evolved around socio-cultural contexts. Second, publication of a women's literature anthology allows readers to remember women writers who have been forgotten in literary history.

**Keywords** : women's literature, woman writer, women's view, anthology, canonization, translation, socio-cultural context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
---

